

삼성 · LG, 세계 LCD 시장 주도

2006년 하반기 국내기업 선도 ... 2사 대형 LCD 매출 점유율 45%

2006년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한국기업이 세계 LCD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8월24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10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의 2/4분기 매출은 118억달러로 2005년 2/4분기보다 23% 늘었으며, 출하 실적도 전년동기대비 28% 증가했다.

매출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평균 판매가격이 4% 떨어졌기 때문으로 디스플레이서치는 분석했다.

2/4분기에 출하된 디스플레이 면적은 55% 증가한 735만㎡로, 축구경기장 980개에 달하는 규모이다.

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 한국의 2사는 2/4분기에 전체 LCD TV용 패널의 54%를 공급하는 등 대형 LCD 시장에서 45%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/4분기에 선전했던 타이완기업(41%)을 누르고 선두를 지켰다.

삼성은 대형 LCD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1/4분기 22.1%에서 2/4분기 24.5%로 늘어 1위 자리를 고수했으며, LG필립스LCD도 19.0%에서 20.0%로 증가해 2위를 유지했다.

디스플레이서치는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가 대형 LCD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인철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8/24>